

■ 어제 '전 남편살해사건' 6차 공판 / 피해자 유족 증인신문

“거짓말 일관... 아들 명예 더럽혀”

“고유정 계획적으로 범행 법정최고형 선고해 달라”

검찰, 계획범행 증거 제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6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증인으로 나와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고씨의 계획 범행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제210회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강모(36)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아들을 죽인 저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면서 “내 아들을 당장

살려내라 말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들은 성실하고, 속 한번 썩이지 않은 착한 아이였다”며 “아들을 만난다며 선물을 안고 집을 나섰는데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이 돌아올까봐 문 앞에서 밤마다 기다린다”면서 “저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고씨가 범행 직후 펜션 주인과 전화 통화 녹음 파일과 줄피땀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레를 펜션에 투숙한 전 남편과 아들이 먹었다는 진술 등을 공개하며 고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펜션 주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씨는 이용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펜션 업주의 말에 시종일관 밝게 웃으며 화답하는 등 범행 후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또 검찰은 국과수 정밀감정결과 펜션 내부 곳곳에 고씨가 피해자를 흉

기로 찢은 뒤 혈흔이 묻은 이 흉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휘두르는 과정에서 생겨난 흔적(정지 이발흔)이 발견되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총 15곳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고씨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도 계획 범행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고씨가 펜션에서 찍은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햇반과 빈 그릇, 줄피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가 담겨 있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찢어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지난 3월 1일 자신의 의붓아들 A(6)군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이번주내로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기소해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함께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콩 수확하는 농촌 4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농민들이 가을잠마와 잇따른 태풍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은 콩을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독감환자 늘는데... 예방접종 '시큰둥'

제주 작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 37%... 전국 꼴찌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독감 환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36주(9월 1~8일) 외래환자 1000명당 3.4명이었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가장 최근 집계인 43주(10월 21~27일) 차에 접어들면서 4.5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5.9명이 넘을 때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지난 2014년 전국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79만 9911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6만 298명으로 증가했다. 제주지역은 2014년 5992명, 지난해 3만215명의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다.

독감 환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백신 예방 접종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예방 접종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백신 접종률은 37.2%를 기록했다. 전라남도가 51.2%의 접종률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50.5%, 전라북도 49.6%, 강원도 4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서 30%대의 접종률을 기록한 곳은 제주가 유일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한다. 특히 감기와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어렵다. 일반 감기는 폐렴이나 천식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만 독감은 심할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홍보물 배부와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 관리에 힘써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70대 노인끼리 다툼중 사망사고... 폭행치사 적용

서귀포경찰서는 흉기를 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A(73)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쯤 흉기를 들고 자신의 집을 찾은 B(78)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낮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씨는 분을 참지 못해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든 B씨를 쓰러트리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B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현재 B씨의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7시 25분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48km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어기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 A호(99t, 승선원 18명)와 B호(96t, 승선원 17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김현석기자

불법조업 어선 2척 적발

의심사제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중증 폐 손상 사례의 공통 증상은 기침·호흡 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상과 메스꺼움·구토 등 소화기 이상 증상, 피로감, 발열 등이다.

특히 미국 내 발생사례 79%가 35세 미만이고, 18세 미만도 15%로 조사되면서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험성에 따른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액상형 전자담배 절대 피우지 마세요”

서귀포보건소 강력 권고

서귀포보건소는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폐 손상과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

배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1479명이 중증 폐 손상을 겪고, 33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10월 2일 폐 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소방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일부 환수 불가피 대법원 “휴일근무·시간외 근무수당 중복지급 안돼”

대법원은 소방공무원 실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선 지자체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10여년간 이어진 소송이 일단락됐지만 이미 이런 수당을 지급한 제주도는 일부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과제도 안겨졌다.

대법원은 최근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들

이 옛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못 미치는 수당을 줬던 것은 문제라고 본 1심,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지침은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일 뿐 수당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1·2심 판결을 토대로 제주

도는 소방공무원 546명에게 미지급된 130억원의 수당을 지난 2013년 모두 지급했다.

문제는 당시 제주도가 소방공무원의 휴일근무와 관련해 휴일근무수당에 더해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중복해서 지급했다는 점이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각 수당이 중복 청구된 것은 심리를 다시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당시 얼마만큼의 수당이 각 개인별로 중복 지급됐는지 그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중복 지급된 수당은 환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 흑염소 먹이들이 (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태그
매일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제주 편백 숲 최대 편백 숲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 편백숲길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숯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764.6678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 T. 064.805.5099

T. 064.764.6678